

광주 작년 임대사업자 전국서 가장 많이 늘었다

2011년 416명서 2657명으로 급증 규제 완화·전월세 시장 강세 영향

광주지역 임대사업자 수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임대사업자 수는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 임대사업자 수는 총 4만5226명으로 1994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2011년 3만9326명이었던 전국 임대사업자 수는 5900명이 늘었다. 이 가운데 광주지역 임대사업자는 2011년 416명에서 지난해 2231명이

증가한 2657명을 기록,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임대사업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2011년 2월11일과 8월18일에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에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2.11 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완화, 중부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민간 준공 뒤 미분양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세 최대 50% 감면,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에 대한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8.18 대책에서는 매입임대 세제 지원 대상을 수도권 3호, 지방 1호에서 수도권, 지방 구분없이 1호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호에 대해서는 보유기간(3년 이상)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광주지역의 경우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타 지역보다 높은데다, 전월세 시장이 수년째 강세를 보이면서 임대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인 부산이 2011년 2279명에서 2012년 1939명 늘어난 4218명, 경기도가 1만506명에서 1798명 늘어난 1만2304명으로 임대사업자 증가세 2, 3위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은 1만4797명에서 2580명이 줄어든 1만2217명, 대전은 2106명에서 1132명 줄어든 974명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802명에서 607명으로 195명이 감소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SKT LTE고객 1000만명 돌파 상용화 1년 9개월만에...세계 4번째

SK텔레콤이 지난 19일 기준 자사 LTE고객이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LTE 고객 증가세에 힘입어 전체 고객(3G, 4G 포함)의 일일 데이터 트래픽(3G, 4G 포함)의 일일 데이터 트래픽을 넘어설 예정이다. 지금까지 단일 통신회사의 LTE 가입고객이 1000만명을 넘어선 곳은 미국 버라이즌사와 NTT 도코모, 미국 AT&T 뿐으로 SK텔레콤의 LTE 1000만 고객 돌파는 전 세계 통신사업자 중 4번째로 추산된다. SK텔레콤은 관계자는 "LTE 고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1일 데이터 트래픽=1페타시대'의 도래가 앞당겨졌다"며 "1일 데이터 1페타시대의 개막은 LTE를 통한 데이터 대량 소비시대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의 LTE 가입 1000만

명을 돌파는 지난 2011년 7월 상용화 이후 1년9개월 만에 도달한 수치로, 이는 SK텔레콤의 3세대 이동통신 WCDMA가 지난 2006년 5월 상용화된 이후 1000만 명 돌파까지 3년1개월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2배 가량 빠른 속도다. SK텔레콤은 올해 연말까지 LTE 고객이 15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오는 9월 LTE-A 상용화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빠르고 안정화된 이동통신 품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LTE 고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었던 비결은 SK텔레콤이 세계 최고의 LTE 품질을 조기 확보한데다, LTE특화 서비스 및 콘텐츠로 타사와 차별화했으며 고객 취향에 맞춘 다양한 단말기를 출시하는 등 한 발 앞선 전략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박정열기자 halo@kwangju.co.kr

코스닥 4년9개월만에 최고치 경신 560선 돌파...시가총액도 126조원 사상 최대

코스닥지수가 4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가총액도 사상 최대치를 뛰어넘었다. 24일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9.44포인트(1.70%) 오른 563.81로 마감, 지난 2008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직전 최고치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08년 7월 1일의 580.77이다. 이날 코스닥시장 시가총액은 126조원으로 작년 말(109조원)보다 15.6%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코스피와 비교하면 코스닥 시장의 강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코스피는 작년 말 1,997.05에서 24일 1,935.31로 3.09% 하락한 반면, 코스닥지수는 496.32에서 563.81로 13.59% 올랐다.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중·대형주보다 소형주가 지수 상

승을 이끌었다. 코스닥 스톡지수는 작년 말 대비 17.59% 오른 반면 코스닥 대형주 100개 종목이 포함된 코스닥 100지수는 10.27% 상승했다. 코스닥시장의 약진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수혜 기대, 기관 자금의 유입, 글로벌 중소형 시장의 강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에 국경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정책 지원에 나선 것이 코스닥 강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중소기업청 기능을 강화하고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세제 지원에 나서자 정책 수혜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다. 한국은행도 대출 금리를 인하하면서 코스닥 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광주은행 'CEO와 함께 하는 봄 소풍' 행사 모습. 광주은행(송기진)은 24일 광주은행 우수 임직원 100여명과 함께 'CEO와 함께 하는 봄 소풍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견학, 보성 녹차 및 트래킹과 판소리 배우기 문화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광주은행 제공>

50대 중후반 경제활동 70%...사상 최고

고용률도 68% 최고

우리나라 50대 중·후반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해 70%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 이후 생계를 위해 자영업이나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활동의 질은 상당히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나마 이런 베이비붐세대가 물러나고 저출산세대가 노동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오는 2020년경 경제활동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때문에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24일 통계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55~5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9.7%로 2000년대 들어선 이후 가장 높았다. 이 수치는 2000년 64.3%에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정체를 보이다가 2010년 68.3%, 2011년 68.9%에 이어 작년 70%에 근접했다. 고용률도 2000년 62.2%에서 작년 68.1%로 5.9%포인트 올랐다. 고용률은 2008년 65.9%에서 2009년 65.6%로 잠시 후퇴했지만 2010년 66.5%, 2011년 67.4%에 이어 작년 68%선을 처음 넘었다. 은퇴를 준비할 나이인 50대 중·후

반의 경제활동이 갈수록 활발해지는 것은 노동인구의 큰 축인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일부는 정년을 앞두고 공공부문 등에서 일하고 있지만 50대 초반에 조기 또는 명예퇴직하고 생계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상당수다. 그러나 재취업해도 기존 경력과 기술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자영업이나 일용직 등에 종사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치킨집, 호프집 등의 창업에 나서기도 하지만 불황으로 성공 가능성이 작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935.31(+16.68)	▲ 코스닥지수 563.81(+9.44)	▲ 금리(국고채 3년) 2.61%(+0.01)	▼ 원·달러 환율 1117.70원(-3.10)
----------------------------	--------------------------	------------------------------	------------------------------

올 전자책 시장 80% 성장 전망

매출액 5830억원 예상

올해 국내 전자책 시장 규모가 작년 대비 80%가량 증가해 바야흐로 '전자책 시대'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구미에서 수년 전 시작된 전자책 시대가 국내에서도 사실상 태동하는 셈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와 토러스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전자책 시장 규모는 지난해 3천250억원에서 올해 5830억원으로 79.4%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0년까지 1000억원대에 머물렀던 국내 전자책 시장 규모는 2011년

2891억원, 2012년 3250억원으로 조금씩 확대됐지만, 작년까지 큰 폭의 성장은 없었다. 전자책 시장의 급팽창은 대면적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다 콘텐츠 공급자인 출판사의 전자책 출간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전자책 시장은 이미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다국적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에 따르면 글로벌 전자책 시장의 연간 성장률은 2009년 50.6%, 2010년 56.8%, 2011년 64.9%, 2012년 48.5%였다. 올해는 36.0% 성장해 시장 규모는 1118억 달러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승무원 업무 방해 처벌 법안 국토위 통과

대기업 임원의 승무원 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가운데 여객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마련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조항이 추가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했다. 조병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승객의 안전유지 협조 의무를 규정한다. 23조 1항에 따르면 항공기

에 탄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 ▲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 흡연 ▲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항공법을 위반해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시도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은 여기에 '기장 등의 업무를 위해(危計)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 추가했다. '기장 등'에는 기장과 부기장뿐만 아니라 승무원도 포함되며 업무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연합뉴스

www.buanmasil.com

제2회 부안 마실축제

아름다운 만남, 행복한 동행
2nd BUAN MASIL FESTIVAL

2013. 5.3(금) ▶ 5.5(일) 3일간

(주행시장: 부안스포츠파크)

주관: 부안마실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교육청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진흥재단 부안군 기관·사회단체